

회 의 명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 간	2022. 9. 20.(화) 14:00~16:00	장 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참 석 자	-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		
	- 연수구가족센터 총괄팀장 김솔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주무관 곽정은		
	-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미정		
	-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해순		
	- E4NET 전무이사 임기운		
	- 센터 이용자 대표(비다문화) 정세연		
	- 센터 이용자 대표(다문화) 도수지 (이상9명)		
작 성 자	김솔 총괄팀장		
회 의 내 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총 9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2. 운영위원 소개 - 김솔 총괄팀장이 참석한 운영위원 총 9명을 소개하다. 3. 3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3분기 센터 주요 운영 현황 및 조직현황을 보고하다. • 위원 의견 - 이도희 위원장은 공동모금회 차량선정과 CCTV설치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센터의 감사이니 박수로 축하하자는 제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박수로 축하하다.		
	4. 1호 의안 2022년 3분기 정산 및 사업실적을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이미정 위원의 동의와 정세연 위원의 재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 의견 - 이도희 위원장은 센터의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고 홍보 중에 있으니 운영위원들도 가입하여 격려와 응원을 보내자고 제안하여 위원들이 참여하다. ▷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센터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이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은 너무 길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르기 쉽기는 하나, 바뀐 센터 명칭과 함께 센터를 또다시 홍보하려니 어려움이 있어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센터를 알리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음을 부연설명하다. - 이해순 위원이 대면과 비대면의 현재 진행 비율을 질문하다.		

회 의 내 용

▷ 주영신 센터장은 현재 비대면 진행이 60%~70% 정도이며 소규모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장단점이 있다. 대면으로 진행시 참석이 어려웠던 아버지들이 비대면 활동키트 배부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활동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모국방문이나 출산으로 인해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어 큰 장점도 있음을 설명하다. 그러나 이젠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대면 참여율이 낮고 비대면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조율해 가며 진행할 계획임을 부연 설명하다.

- 이해순 위원은 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육은 어디서 진행되며 예산에 대해 질문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컴퓨터 학원과 연계하여 장소는 학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안정정착은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학동기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중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부연설명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다문화가정의 범죄 노출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얻는 정보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었다고 설명하며 다문화가정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내하다.

▷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하반기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보는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다.

- 이미정 위원장은 검정고시 합격률이 높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검정고시 사업은 인천거점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포스코 후원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겠다고 연초에 홍보가 되어 그것이 합격률을 높이는데 큰 강화물이 된 것 같다고 답하다.

5. 2호 의안 2022년 4분기 주요사업을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이해순 위원의 동의와 임기운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주영신 센터장은 8월~9월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유튜버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주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고자한다고 하다. 또한 다문화이해하기동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주민 어머니들과 이주민 어머니들이 1:1 매칭을 통해 멘티-멘토의 관계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음을 부연설명하다.

- 도수지 위원은 검정고시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이 강화물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으며, 운전면허 필기교육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하다. 베트남에는 이민자를 위한 사업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답하다.

▷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들의 자가 운전율이 높아지면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확실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해자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하며 이에 대한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다.

- 주영신 센터장은 10월 15일 "다어올림페스티벌_가족운동회" 개최예정임을 알리고 행사 때 운영위원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다고 초청하다. 가정의 달 5월 행사로 계획했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족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3년 동안 함께 모이는 장이 없어서 이번 가족운동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다문화체험부스운영 및 의상체험, 다양한 나라의 전통놀이와 음식부스운영, 나눔장터 등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다.

- 이미정 위원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많아져서 좋아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4월 워크숍으로 에버랜드를 다녀온 이후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다녀와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설명하다. 또한 기존직원들이 많이 교체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워크숍을 통해 단합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진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는 1박2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 사업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11월 8일 당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임기운 위원이 기부 플랫폼 '체리'에 대해 안내하다. 현재 우리나라 300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기부단체 캠페인이나 후원, 기부 등 IT블록체인 기관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서울에서는 플랫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면 앱을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다.

▷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연수구가족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첨언하다.

- 이혜순 위원은 2023년부터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양육급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조부모 양육이 늘어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다. 이에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이러한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아이돌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며 2023년 생애주기별 교육을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논의 해보겠다고 답변하다.

6. 기타 안건 논의

-곽정은 위원은 첫 참석으로 센터 사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참여해보니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 맞춰 센터도 하반기 사업 잘 진행해 가겠다고 하다.

또한 2023년부터 진행되는 인천시 종사자 처우개선책으로 여성가족부의 임금체계가 낮아 인천시에서 임금보전을 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정규직(통합사업 인력)은 보건복지부 100%임금으로 지원될 계획임을 보고하다.

▷ 이에 임기운 위원이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타 기관들도 고용의 안전성과 예산범위 내에서의 임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임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의 일정 조정 및 각 위원님들의 안내사항 전달 등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 개설 동의여부를 묻다.

▷ 이에 다른 운영위원들 모두 동의하여 추후 간사를 통해 채팅방을 운영하기로 한다.

7. 폐회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연수구가족센터 3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